醫史學 제17권 제2호(통권 제33호) 2008년 12월 *Korean J Med Hist 17*: 223-237 Dec. 2008
©大韓醫史學會
ISSN 1225-505X

일제시기 한국의사들의 독립운동

박윤형* 홍태숙** 신규환*** 임선미* 김희곤#

1. 머리말

해방 이후 60여년이 지난 지금 국가·사회적으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평가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과 예우도 진척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본격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다.

저자들은 의사 중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공적조서』 중에서 공적개요에 대한 기술 중 '의사', '의전원재학', '의사개업', '병원재직' 등으로 표시된 자를 찾아냈다. 예를 들면 '김필순'은 "1900년대 세브란스병원에 재직하면서…"로 기술되어 있고, '신영삼'은 "1918년 서울에서 경성의전을 졸업한 후…"로, 유진동은 "1940년부터 광복군 군의처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기록을 근거로 다시 『독립운동사』에서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유진동은 『독립운동사』 902쪽에 광복군 편제에서 군의처장으로 확인되나, 국내 의대 동창회 명부에는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중국 또는 간이강습소에서 의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독립유공자 공훈록 공적조서』와 함께 『독립운동사』(전10권,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발간)를 살펴보면서 관련인사를 검색하였다. 예를 들면, 김창세의 경우 『독립유공자 공훈록 공적조서』에는 의사라는 언급이 없는데, 『독립운동사』 476쪽에는 "홍십자병원의 김창세로 하여금 매월 3일 간씩 상해 거주 동포를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하게 해 준 것은 비록 사소한 일인 것 같으나 당시 독립운동의 형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로 기술되어 있는데, 세브란스 동창회 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1운동이 발발하면서 운동에 참여했던 의학생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3·1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에는 의학생들의 출신학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단으로 의사 독립운동가들을 추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공훈이 인정된 독립운동가 중 50인의 의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 찾아낸 인사에 대하여는 각각 참고문헌을 찾아 생애와 활동을 기록하였다. 기록이 정리된 후 의사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세미나 이후 개별적으로 본인 또는 선친 등이 의사독립운동가임을 밝혀 왔다. 그들 인사에 대하여 문헌을 검색하여 공훈을 받지 못한 의사를 함께 정리하여 포상자 71명, 미 포상자 85명, 총 156명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였다.

*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 한국의사100년재단, ***연세의대 의사학과, # (교신저자)안동대학교 사학과

이밖에 『독립운동사 자료집』(전14권, 별집3집), 『일본고등경찰요사』, 『한국침략사료총서』(일본외무성), 각급법원의 판결문, 수형인명부, 조선소요사건 관계서류, 『폭도에 관한 편책』(조선총독부 경무국) 등에서 의사 또는 의대 재학생임을 확인하고 출신학교 동창회와 해당학교, 의료계 원로의 증언 등을 통해 졸업여부를 확인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인물도 적지 않을 터이나, 이 작업을 통해 일제하 한국의사들의 독립운동을 조망하고, 향후 각 인물들의 역사적인 공과를 검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의사들이 펼친 독립운동

1) 신민회 활동과 이완용 암살 시도

의사들이 독립운동에 나선 시기는 첫 의사들이 양육되던 그 순간부터였다. 세브란스 의학교 졸업을 앞둔 김필순(金弼淳: 1878~1919)은 1907년 9월, 안창호(安昌浩: 1878~1938), 양기탁, 신채호, 이동휘, 김구 등이 조직한 비밀정치결사인 신민회(新民會)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신민회는 중국령 압록강 상류 통화(通化)에 독립군 기지를 세운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신민회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김필순의 집에서 회의를 연 일도 있었다. 또 김필순은 의형제를 맺은 안창호에게 김형제 상회의 위층을 접빈실로 제공하여 독립운동가들이 비밀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다.[1] 이러한 활동들은 의학도들이 참가한 독립운동의 서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의사출신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직접적인 암살활동에 참여하는 이도 있었다. 이른바 '이재명 의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재명(李在明: 1890~1910)을 포함한 14명이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박제순, 임선준 등 을사오적을 암살하려고 시도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가담한 의학생으로는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학생인 오복원(吳復元)·김용문(金龍門) 등이 있었다.[2]이들은 1909년 12월 22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참석한 이완용을 암살하기 위한 '이재명 의거'에 연루되어 각각 10년형과 7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2) 독립군 기지 건설

1908년 6월 세브란스의학교는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김필순, 주현측(朱賢則: 1883~1942), 박서양(朴瑞陽: 1885~1940), 신창희(申昌熙: 1877~1926) 등 졸업생 대부분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들은 망국의 위기에서 지식인으로서 개인의 영달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필순은 신민회에 참여하여 만주지역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미 1896년 의병운동 당시 의병들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만주로 이동하여 국내진공을 도모한 일이 있었고, 또 1907~8년에도 의병들이 만주로 이동하여 근거지를 확보하는 활동을 벌인 바도 있었다. 그런데 계몽운동계열에서 만주지역을 독립군 기지 건설 예정지로 상정하고 계획에 나선 시기는 1909년 무렵이었다. 독립군 기지 건설 계획은 당시 의병과 계몽운동 계열 양쪽 모두가 추진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압록강 건너편 서간도와 백두산 북쪽과 동쪽의 북간도, 그리고 연해주 등이 그들의 주요 집결지가 되었다. 그 가운데 서간도에는 신민회와 기호지역, 평안도와 황해도, 경북북부지역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들었다.

신민회는 중국 청도에서 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1) 박형우. 근대서양의학교육사. 청년의사; 2008: 479-482쪽. 서양의학 도입기의 의사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박형우 교수가 최근 저작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초고를 보여준 박형우 교수에게 감사한다.

2) 김동산. 이완용 암살의거 수기. 월간중앙. 2004년 8월호.

의사로서 이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김필순은 신민회의 핵심인물인 안창호와 의형제를 맺었고 조선이 병탄되자 1911년에는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망명의 직접적인 계기는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그 자신도 체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3]

그가 이동녕(李東寧: 1869~1940)과 함께 그곳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유하현(柳河縣) 삼원포(三源浦)가 그의 활동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곳은 신민회가 미리 요원을 파견하여 적정한 망명지로 선정해 둔 곳이고, 1911년에는 서간도지역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耕學社)와 뒷날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로 발전하게 되는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가 세워졌다. 이것이 부민단(扶民團)과 한족회(韓族會)라는 자치조직과, 백서농장(白西農場)과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라는 군사조직 등으로 발전하였다. 김필순의 망명시기에 삼원포를 중심으로 독립군 기지건설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브란스의학교 1회 졸업생 가운데 박서양과 신창희도 김필순과 같은 목적을 가진 망명자였다. 박서양은 졸업 후 1917년 만주로 망명하기까지 모교에서 근무하였다.[4] 만주에서 박서양이 벌인 활동은 병원 설립을 통한 민족 구심체 형성, 학교 설립과 운영을 통한 민족인식 고취, 독립군 군의로서의 활동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그는 북간도의 연길현(延吉縣) 용지향(勇智鄕) 국자가(局子街)에 구세병원(救世病院)을 열어, 한국인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숭신학교(崇信學校)를 설립하여 민족문제를 고취시켜 나갔는데, 이에 대해 일본 정보기관은 숭신학교가 '불령선인이 건립한 배일학교'라고 지목하기도 했다.[5] 또 이 학교는 임시정부의 문서를 배포한 일도 있고, 특히 국내에서 광부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던 1930년 2월에는 가두시위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1932년 일제 영사관 경찰에 의해 학교가 폐쇄되었다. 마지막으로 박서양은 대한국민회 군사령부의 유일한 군의(軍醫)로 임명되어 활약하였다. 또 1925년 중반에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엿보이는 한족노동간친회(혹은 한족간친회)에도 참여하였다.[6] 이러한 행적을 보면, 박서양이 동기생들의 망명 활동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독립군 기지 건설에 참여하고자 그 뒤를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또 신창희가 동몽골 지역으로 가서 의술을 베풀었다는 사실 역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실행한 일이었다. 그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삼았다면, 굳이 험난한 곳에 터를 잡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머나먼 곳일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동포들도 많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이유가 바로 그곳에 독립군 기지가 건설되고 있거나, 미리 그 근거지를 확보한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독립군 기지와 독립운동 교두보 확보를 이야기하자면, 1911년 2월 세브란스의학교 2회 졸업생인 이태준(李泰俊: 1883~1921)을 빼놓을 수 없다. 1910년 안창호의 권유로 신민회의 자매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입한 그는 김필순과 망명을 논의하였다. 그러다가 만주로 빠져나가는 김필순을 배웅하고 돌아온 직후, 이태준 자신도 위험에 처해있다는 판단이 들자 바로 망명길에 올랐다. 다만 이태준은 처음에는 남경에 머물다가 1914년 몽골 울란바토르(당시 울가)로 갔다. 그 계기는

3) 박형우. 근대서양의학교육사. 486-487쪽.

4) 제중원의학교 졸업한 다음해 1909년 7월 이 학교가 세브란스병원의학교로 등록되고 1913년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다시 1917년 3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가 되던 사이에 그는 화학을 가르치고 외과학교실의 조교수와 부교수를 역임했으며, 해부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1917에 중반 갑자기 만주로 이주하였다. 박형우. 근대서양의학교육사. 505-521쪽.

5) 機密 292號 間情 제27, 52, 53호(1920년 11월 9일 간도총영사 대리영사 堺與三吉이 외부대신 內田康哉에게 보낸 보고)

6) 박형우. 근대서양의학교육사. 515-519쪽.

몽골지역에 장교양성소와 항일혁명단체 조직 계획을 갖고 있던 김규식(金奎植: 1877~1950)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김규식은 1916년 앤더슨 마이어회사(Anderson & Meyer Company) 몽골지사에 입사하였고, 1918년 그는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였다. 당시 라마교 영향으로 몽골은 근대 의술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는데, 이태준의 근대 의술은 몽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이태준은 몽골왕의 어의(御醫)가 되었고, 몽골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그는 이를 발판으로 몽골지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왕래할 거점을 확보하였고, 장차 독립운동 기지를 마련해 나가는 수순을 밟아갔다. 그런 가운데 그는 장가구(張家口)에서 십전의원(十全醫院)을 개업하고 있던 세브란스 출신 김현국과 연결망을 만들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이 연결망의 구체적 실례 중에는 코민테른 자금 40만 루블의 안전수송이라는 거사도 있었다. 레닌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낸 200만 루블 가운데 1차분 40만 루블의 금괴가 모스크바에서 울란바토르와 장가구, 그리고 북경을 거쳐 상해로 운반되었는데, 이태준이 바로 울란바토르와 장가구 연결망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 그는 의열단에게 폭탄전문가를 소개하여 의열투쟁에 필요한 무기 제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7]

만주지역에서 독립군 기지 건설과정에 참가한 의사로는 관립의학교 출신도 있었다. 대종교 교수 김교헌(金敎獻)의 동생인 김교준(金敎準)은 1899년 설립된 관립의학교 1기 출신이다.[8]의학교를 졸업한 뒤 군의(軍醫)로 활약했던 그는 1917년 중국 길림성 삼도구에서 김교헌을 따라 선교와 의료활동에 나섰다. 그런데 191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 조직 가운데 상당수가 대종교 조직망과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활동도 독립군 기지 건설과 항일투쟁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1920년대 초반에 영안현(寧安縣)에서 영안의원을 열고 있던 '김원장(金院長)'이라 불린 의사도 있었다. 정확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를 오갈 때 비밀리에 숙식과 여비를 제공하였다.[9]말하자면 병원 자체가 독립운동의 아지트였고, 이를 경영한 김원장이란 인물이 주요 거점을 담당한 셈이다.

1910년대 말에 흑룡강성 지역에서 독립군 기지 건설에 나섰던 김중화(金中和, 본명 金龍文)는 평남 중화 출신으로, 1909년 11월 이완용 등 을사오적 암살을 기도하다가 7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 의거 당시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3년생이던 그는 출옥한 뒤 학교를 다시 다녔는지 알 수 없지만, 1910년대 후반에 만주로 망명하여 흑룡강성에서 송강의원(松江醫院)을 세워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3·1운동 직후에 만주로 망명하여 삼원포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자해(李慈海)도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나선 인물이다. 그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는 평북 중강에서 병원에 근무하다가 3·1운동에 참가한 뒤 망명길에 나섰다. 그는 뒷날 중국 대동(大同)과 내몽골 포두(包頭)에서 광복군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10]

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도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가 활동하였다. 1919년 5월 황해도 송천 출신이자 세브란스의학교 3회 졸업생인 곽병규(郭柄奎)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업하면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참여하였다.[11] 곽병규는 이후 상해로 이동하여 대한적

7) 반병률. 세브란스와 독립운동. 연세의사학 1998; 2-2: 325-326쪽.

8) 관립의학교 1기생은 1899년 9월에 50명이 입학하여 1902년 가을에 3년 과정을 마친 뒤, 4개월 실습기간을 거쳐 1903년 1월 9일에 1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여인석. 대한제국기의 官에 의한 의학교육. 연세의사학 1998; 2-2: 295쪽.

9) 박영준. 한강물 다시 흐르고(박영준 자서전).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05: 62-63쪽.

10) 이자해. 慈海自傳. 1960.

11) 반병률. 세브란스와 독립운동. 연세의사학 1998; 2-2: 327쪽.

십자사에서 의사로 활동하였고, 1920년대 중후반에는 고향에서 신간회 사리원지부를 조직하기도 했다.

3) 3·1운동의 선두에 서다

국권을 상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지식인들은 이 기회를 독립운동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하였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독립운동 진영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광복군정부(大韓光復軍政府)를 선언하였으며, 북경에서는 신한혁명당(新韓革命黨)을 건립하였고, 1917년에는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여 민주공화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한 후 전후처리를 위해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독립의 기회로 포착하였다. 상해와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활약하던 인물들이 나서서 파리강화회의에 우리 민족문제를 상정시키려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상해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918년 11월 하순에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856~1924) 대통령의 특사인 찰스 크레인(Charles Crane)이 중국대표의 파견을 권유하기 위해 상해에 와 있었는데, 그의 연설회에 참석한 여운형(呂運亨: 1886~1947)이 크레인에게 우리 문제가 파리강화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지를 문의하고 긍정적인 답을 받은 것이 그 계기였다. 신규식(申圭植: 1879~1922)의 지도를 받은 여운형은 바로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고, 국내외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일본·만주·연해주 등에도 동지를 파견하였고, 미국과 연해주, 그리고 일본 동경에서도 대표단 파견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의 통치 아래 한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한국문제를 파리강화회의에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나섰다. 결국 이를 극복하자면 조선민족 스스로가 독립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릴 필요가 대두하였다. 이에 일본에 유학중인 학생들이 먼저 일어섰으니, 그것이 바로 2·8독립운동이었다. 적의 심장부인 수도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세계 외교관들에게 조선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보내고,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으로 망명했던 선우혁(鮮于赫: 1882~?)이 평안도로 들어와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상해에서 활동하던 장덕수(張德秀: 1895~1947)가 일본을 거쳐 국내로 잠입하였고, 2·8운동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송계백(宋繼白: 1896~1920)이 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와 천도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천도교와 기독교 및 불교 지도자들과 학생 대표들 사이에 거사 준비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때마침 고종의 장례식을 앞두고 서울로 모여든 군중들을 에너지로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3월 1일을 거사 날짜로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5월 초까지 두 달 넘게 진행되었다.

시위 준비와 확산과정에서 학생들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울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 시위에 앞장서거나 동참하고 나섰다. 그 가운데 경성의학전문학교(이하 경성의전)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이하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참가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학생들의 참가는 세 단계로 나뉜다. 준비단계와 3월 1일 시위 현장 활동, 그리고 3월 5일 2차 시위 전개가 그것이다. 준비과정에서는 독자적인 준비와 민족지도자들과 연결된 준비가 있었다. 학생들은 독자적인 준비작업 도중에 민족지도자들의 움직임과 연결되고, 학생동원과 전국 확산이라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시위 당일에는 민족지도자들이 태화관에 모여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행위를 마칠 때, 학생들은 파고다공원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 시위를 이끌었다. 그리고 3월 3일 고종의 장례를 마친 뒤 3월 5일에 다시 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를 서울에서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일제 경찰에 검거되고 곤욕을 치렀다. 1919년 4월 20일자 조선총독부 보고에 따르면 구금된 학생 가운데 경

성의전 학생이 가장 많은 31명이고, 다음이 경성고보(22명), 보성고보(15명), 경성공전(14명), 경성전수학교(12명), 배재고보(9명), 연희전문(7명), 세브란스의전(4명) 등의 순서였다.[12] 이어서 그 해 11월 현재 서울시위로 말미암아 검거되어 판결을 거치던 학생으로 경성의전 학생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경성고보(29명)를 비롯하여 서울의 여러 학교 학생들이 다음을 이었고, 세브란스의전 학생은 조선약학과 배재고보 등과 더불어 10명이 고생하고 있었다.[13]

3·1운동 당시 경성의전 학생수는 한국인 197명과 일본인 70명이었다. 신학기가 4월에 시작되므로 3·1운동 당시의 학생통계는 한 해 전인 1918년 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1919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학생이 141명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에 일본인 학생은 93명으로 증가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한국인 학생 79명이 퇴학한 사실이다. 이 수치 변화는 3·1운동과 관련될 것이다.

표 1. 경성의전 학생현황(1918~1920)[14]

(단위: 명)

연도		학생수					학생이동			
		1년	2년	3년	4년	계	입학	졸업	퇴학	사망
1918	한	66	47	36	48	197	58	37	1	1
	일	27	21	22	–	70	25	–	2	2
1919	한	51	38	25	27	141	69	31	79	2
	일	26	26	19	22	93	25	22	1	2
1920	한	65	41	36	24	166	34	15	2	5
	일	39	20	22	16	97	62	22	11	

한편 세브란스의전의 정원은 한 학년 당 20명 정도로 유지되었다. 실제 1919년 재학생 숫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대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세브란스의전은 1917년에 총원 80명 규정에 실제로는 59명에 지나지 않았고, 1923년에는 정원 120명에 실제 재학생 62명이었다.[15] 따라서 경성의전 한인학생과 세브란스의전 학생은 각각 20% 정도가 판결이나 옥고까지 거치는 고난을 겪었다고 판단된다. 1919년 4월 20일자 보고에 나타나는 피검 학생 수치에 경성의전은 1학년 10명, 2학년 9명, 3학년 5명, 4학년 7명 등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이에 반해 세브란스의전은 1학년 3명, 4학년 1명만으로 보고되었다.

경성의전 학생 가운데 김형기(1년), 이익종(10월), 김탁원·최경하(이상 7월), 전진극·송영찬·한병만·허익원·이규선·허영조·장세구·채정흠·김영진·함병승·강학룡·백인제·황용주·정인철·오용천·함태홍·현창연·김종하·유완영·김병조·이강·이형원·김중익·김양수·김창식·길영희(이상 6월) 등이 옥고를 치렀다. 이외에도 비록 8월에 면소판결을 받은 학생이 네 명인데, 실제로는 이들도 3월부터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뒤에 풀려났다.

12)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其一, 150-151쪽.

13) 매일신보(1919. 11. 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42쪽

14)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현황표」는 李忠浩. 日帝統治期 韓國醫師敎育史 硏究. 국학자료원; 1998: 173쪽.

15) 1917년 일람에 따르면, 학생 총원은 80명 이하였으니, 한 학년 당 20명인 셈이다. 실제로는 1학년 26명, 2학년 10명, 3학년 13명, 4학년 10명이었다.(Catalogu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Korea, 1917. 44쪽). 한편 1923년에는 총원 120명으로 확충되었지만, 실제로는 1학년 24, 2학년 17, 3학년 14, 4학년 7명에 지나지 않았다. (セブランス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1923. 37-39쪽.)

한편 세브란스의전 학생으로는 배동석(1년), 김병수(8월), 최동(7월), 김찬두·김봉렬·박주풍(이상 6월), 서영완(6월형 3년 집행유예)이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김성국·이굉상은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것이 확정되던 1920년 2월 27일까지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이 가운데 김병수는 이갑성에게서 받은 독립선언서 200매를 갖고 군산으로 이동하여 군산시위를 이끌어냈고, 이어서 다시 서울로 이동하여 3월 5일 시위에 참가했다. 그리고 이용상은 3월 1일 이갑성에게서 독립선언서 400매를 받아, 대구와 마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또 이용설은 『삼일신문(三一新聞)』을 간행하여 배포하는 활동도 벌였다.

이들 중에는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외에 일본에서 의학교육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황애시덕이 3·1운동에 참가했는데, 그는 1919년 8월에 면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지방에서 개업하고 있던 의사가 지역의 시위를 이끈 경우도 있다. 평남 강서군 함종면에서 개업하던 강기팔(姜基汎)이 대표적이다. 경성의전을 졸업한 그는 1919년 3월 6일 함종면 시위를 주도했는데,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으며 시위 군중을 이끌다가 검거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고 2년형의 옥고를 치렀다. 또 중강진공립병원에서 근무하던 이자해(李慈海)가 시위를 이끈 직후에 망명한 일도 지방의사가 활동한 사례 중 하나이다.[16]

결국 3·1운동은 개업의사보다는 의학도들이 주도한 시위였던 셈이다.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두 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시위에 참가했고, 이로 말미암아 20~30% 학생들이 투옥되고 옥고를 치렀다. 대체로 이들은 옥고를 치른 뒤에 다시 복학하여 의사가 되는 길을 걸었다. 하지만 나창헌처럼 검거를 피해 망명하여 중국지역에서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경우도 있었고, 이미 개업해 있던 의사가 3·1운동에 앞장 선 경우도 있었다. 사리원에서 일어난 이민호가 그런 사례에 속한다.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이규갑의 조카인 그는 3년형을 치른 뒤에 연해주와 만주로 이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1944년 최후를 맞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한 보기 드문 인물이다.

4) 3·1운동 이후 국내 항일투쟁

(1) 국내 의열투쟁

3·1운동에 참가한 뒤 의열투쟁에 뛰어든 인물도 있다. 박성행(朴聲行)은 1914년 조선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 4회 졸업생인데, 해주에서 3·1운동에 참가했다가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0년에 그는 대한독립단 황해도지단에 가입하여 3·1운동 시위대를 박해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은율군수 최병혁(崔丙赫: 1878~1920)을 암살하는 데 참여하였다. 박성행은 주재소를 습격하고 전선을 절단한 뒤 구월산으로 들어갔지만, 이를 파악한 일본군이 공격함에 따라 접전을 벌이다가 검거되고 말았다. 다시 3년 6월형을 치른 뒤에 그는 해주에서 병원을 열었다.

(2) 경성의전 맹휴 투쟁

3·1운동 이후 1921년 6월 경성의전에서는 동맹휴학투쟁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3·1운동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민족감정을 자극한 경성의전 일본인 교수의 망언이 빚어낸 것이었다.[17] 1921년 5월 26일 해부학 실습에 쓰이던 두개골 하나가 사라지자, 구보 다케시(久保武) 교수가 "너희들 조선 사람은 원래 해부학 상으로 야만에 가까울 뿐 아니라 너희의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정녕 너희들 중에 가져간 것"이라고 못 박았다.[18]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민족문제를 둘러싸고 큰 충돌이

16) 李慈海. 慈海自傳. (미발간 육필원고), 중국 大同, 1960;『자해자전』은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자료집으로 발간되었다. 국가보훈처, 李慈海自傳. 2007.

17) 3·1운동에 참가했다가 검거되어 고생한 인물 가운데, 옥고를 치른 뒤에 다시 경성의전을 다니다가 구보교수 축출에 나섰던 인물로는 張世九·崔溶武·楊奉根 등이 있다.

일어났다. 한인 학생 194명은 전원 구보교수의 강의를 거부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동맹 휴교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자 학교는 한인 학생 9명을 퇴학시키고, 나머지 185명을 무기정학으로 처분했다. 이에 한인 학생 194명 전원이 자퇴신청으로 맞섰다. 이에 졸업생으로 구성된 교우회(校友會)가 나서서 타협점을 찾았고, 그 결과 6월 28일에 가서야 사태가 정리되었다.[19]이 사건은 결국 민족차별문제에 정면으로 투쟁을 벌인 의전학생의 항일투쟁이었던 셈이다. 구보 다케시는 학생들의 투쟁 이후에 정신이 불안해져 정신병자가 되고, 결국 이듬해인 1922년 학교에서 쫓겨났다.[20]

(3) 사회운동과 6・10만세운동

의사들이 사회운동에 참가한 경우는 흔하지 않다. 유진희(兪鎭熙: 1893~?)의 경우가 보기 드물게 그에 속한다. 1914년에 경성의전을 졸업한 그는 1921년 3월 노동운동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는 조선노동공제회에서 대표 61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마침 경성의전에서 해부학 실험용 두개골 분실과 민족차별 발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질 때, 그는 분규 수습을 위해 동창회 대표로 선출되어 타결에 나섰다. 또 1922년 11월『새생활』잡지사 기자로서 러시아혁명 5주년 기념기사와 함께 '자유노동조합취지서'를 인쇄하여 배포했다가 검거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 조선공산당을 조직하고 나선 김재봉・김찬과 더불어 활동하기도 한 그는 1927년 신간회 결성에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한국공산주의운동사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김찬은 함북 명천출신인데 1912년 상경하여 경성의전을 다니다가 1913년 일본으로 가서 명치대학(明治大學) 전문부 법과를 다녔다. 한편 1920년대 사회운동에 참가한 인물에는 신간회 울산지회장을 맡았던 양봉근(楊奉根: 1897~1982)이 있다. 그는 3·1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구보 망언 사건에서는 경성의전의 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1920년대 이후 그는 울산지역에서 사회운동과 교육운동 등에 참여하였으며, 울산지역에서 신간회 운동을 조직하기도 했다.[21] 그밖에 만주에서 한족노동간친회에 참가했던 박서양의 활동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1926년 6・10만세운동에 참여한 학생도 있다.[22] 당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 참가하여 활약하던 인물 가운데 이수원(李壽元)・박의양(朴儀陽)・문창모(文昌模) 등이 대표적이다. 6・10만세운동을 총괄 기획하고 지휘하던 권오설(權五卨)이 같은 안동출신인 이수원을 연락책으로 활용했고, 역시 고향과 가까운 경북 영주 출신인 박의양도 마찬가지였다. 박의양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도서관창립전문위원을 맡았고, 6・10만세운동 당시 자금조달에 기여했으며, 그 뒤 신간회 경성지회의 총무간사를 지내고 영주지회에도 참가하였다. 문창모는 6・10만세운동에 이어서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도 참가한 인물이다. 한편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 회보발행 전문위원으로 활약하던 인물 가운데 현규환(玄圭煥)도 눈여겨 볼만하다. 경성의전 재학생이던 현규환은 3・1운동에도 참가하였는데,[23] 이후 한국인의 유망과 이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한『한국유이민사(韓國流移民史)』를 발간한 인물이다.

1930년대에는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 의

18) 醫專紛擾事件. 동아일보. (1921. 6. 9).

19) 李忠浩. 日帝統治期 韓國醫師敎育史硏究. 국학자료원; 1998: 186-187쪽.

20) 李忠浩, 日帝統治期 韓國醫師敎育史硏究. 국학자료원; 1998: 188쪽.

21) 신영전·윤효정.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 의사학. 14-1; 2005. 6: 8-10쪽.

22) 동아일보. (1926. 6. 11), 1면. 이때 체포된 학생들을 학교별로 보면, 연희전문 42명, 중앙고보 58명, 세브란스의전 8명, 보성고보 7명, 그밖에 중등학교, 양정고보, 배재고보, 송도고보 학생들이었다.

23) 현규환. 나의 人生 나의 찬스. 문원사; 1994: 9-10쪽.

학부를 다니던 조규찬(曺圭瓚: 1909~1997)의 활동이 눈에 띈다. 1931년 4월 그는 학내에서 신현중(愼弦重)과 함께 조선독립과 반제운동을 목적으로 독서회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그는 독서회를 반제학생협의회로 발전시키는 한편, 만주를 침공하여 침략전쟁을 확산하던 일제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반제신문과 격문을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5)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상해는 한국독립운동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다. 신해혁명 직후부터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 망명하여 터를 잡았고, 1912년에는 동제사(同濟社)라는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상해에서 3·1운동의 신호탄이 올랐고,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정신을 수렴하여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독립운동을 통해 민주공화정부를 수립했으니, 곧 군주국가를 벗어나 근대국민국가로 성큼 나아간 것이다. 여기에 의학도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상해지역에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한 의사들은 두 가지 부류였다. 하나는 국내에서 3·1운동에 참가한 뒤 망명한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 출신이고, 다른 하나는 상해를 비롯한 국외에서 의학을 공부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세브란스의전 출신인 주현측·신현창·김창세와 경성의전 출신인 나창헌과 신영삼, 그리고 이미륵으로 알려진 이의경(李儀景) 등이 대표적이고, 후자로는 미국에서 학습한 이희경과 상해에서 의학을 공부한 신건식·신영삼·유진동·임의탁 등이 있다.

주현측은 1911년 105인 사건으로 검거되어, 1912년 9월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가, 1913년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는 1921년 상해에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군자금 조달에 힘을 쏟았고, 평북 연통제 참사와 재무부 참사를 맡았다. 또 그는 1921년 적십자사 총회에서 상의원(常議員)으로 활동하고, 1922년 국민대표회기성회(國民代表會期成會)에 참가하기도 했다. 1927년에 귀국한 그는 1936년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고, 1942년 미국선교사를 통해 임시정부에 군자금 송출한 거사로 말미암아 투옥되어, 그해 3월에 사망했다.[24]

신현창(申鉉彰: 1892~1951)은 3·1운동에 참가한 뒤 상해로 망명하였다. 그는 상해에서 병원을 열고 수익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제공했다. 1921년 11월 25일과 29일 대한적십자회 정기총회에서 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 등 15인과 같이 상의원에 선임되었으며, 1922년 10월 28일 임시정부 지원단체로 군인의 양성과 독립전쟁의 비용 조달을 목적으로 조직된 한국노병회의 이사를 지냈다. 1929년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귀국하였으며, 신간회에 가담하였다. 1942년 신사참배 반대혐의로 투옥되었다.

김창세(金昌世: 1893-1934)는 세브란스의전을 1916년에 졸업하고 2년 뒤에 재림교에서 운영하던 상해 홍십자병원에 일종의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상해시절 그는 민족독립과 국민건강 문제를 고민하면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길을 찾았다. 대한적십자회병원에서 진료하고 간호원양성소를 창립한 것은 그러한 고민의 결과였다. "전쟁의 시기에 의사의 부족이 잇기를 려(慮)하야 간호원으로 하여곰 구급에 필요한 의학의 지식을 득(得)하게" 한다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25]간호원이란 결국 독립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길이면서 의사를 대체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던 셈이었다. 하지만 재정문제로 1기생만을 배출하였다.[26]아울러 평남 용강 출신인 그는 임시정부의 용강군 조사원으로 활동하였고 임시공채관리국 공채모집위원

24) 박형우. 근대서양의학교육사. 540-552쪽.

25) 적십자간호원양성소의 개학. 독립신문. (1920. 2. 7).

26) 박윤재. 김창세의 생애와 공중위생 활동. 의사학 15-2, 2006: 213-214쪽.

으로도 활동했다. 1920년에 그는 미국으로 가서 공중위생학에 몰입했고, 1925년 귀국하여 육체적 민족개조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흥사단의 이념을 의학적 견지에서 구체화한 이론이었다.[27]

나창헌(羅昌憲: 1896~?)은 3·1운동에 참가한 뒤 구금되었지만, 풀려나자마자 1920년 1월 대동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상해로 탈출하였다. 그곳에서 나창헌은 철혈단을 조직하여 단장을 맡고, 김구를 따라 한국노병회 결성에 참가했다. 이후 임시정부의 경무국장과 내무부차장을 역임한 그는 1926년에 결성된 병인의용대를 지휘하여 의열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신영삼(申榮三: 1896~1946)은 경성의전을 졸업한 뒤 만주로 망명하였다가 3·1운동에 참가하고서 상해로 망명했다. 중국 항공창(航空廠)의 군의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1930년대에 들어 조선혁명당과 의열단에 참가하고, 1942년부터는 중경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약하였다.

경성의전과 세브란스의전이 아닌, 지방 출신 의학도가 임시정부에 참가한 경우도 있다. 대구제중원(대구 동산병원의 전신으로 1898년 설립) 의학당을 1912년에 수료한 이범교(李範敎: 1888~1951)가 그 주인공이다. 대구에서 개업하던 그는 3·1운동 당시 대구시위에 참가한 뒤 수배를 피해 상해로 망명했고, 그곳에서 임시정부의 교통부 교통위원을 활약하고, 국내와 만주를 오가며 1920년대 초반까지 독립운동에 자취를 남겼다.

한편 이희경(李喜儆: 1889~?)은 시카고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1915년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서 귀국했다가, 1918년 12월 상해로 망명하였다. 그는 임시정부 수립과정에 참가하고 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내면서 대한적십자회를 발족시켰다. 1920년에 그는 외무총장대리와 외무차장을 맡아 미국 의회 극동지역시찰단을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벌였고, 1923년 미국으로 갔다.

신건식(申健植: 1889~1963)은 상해에 독립운동의 교두보를 만들어낸 신규식의 동생이다. 그는 절강성에서 세운 항주의약전문학교 출신으로 상해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독립운동 조직인 동제사에 참가한 뒤, 중국군 군의관으로 활약하다가, 1939년부터 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아 활약하였는데, 재무부차장과 한국독립당 감찰위원 등이 그의 주된 직책이었다.

임의탁(林義鐸: 1891~?)은 상해 동제의학원 출신으로 러시아 지역에서 독립군에 참가하다가 1930년대에 중국 본토지역으로 이동하여 임시정부에 합류한 인물이다. 그는 1944년에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에 가담하였다.

서재필(徐載弼: 1864~1951)의 경우도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정리된다. 다만 그 장소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인데, 그는 임시정부의 외교고문이 되고,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 외교활동을 폈다. 한국친우회를 조직하고, 『한국평론』을 발간했으며, 워싱턴회의에 한국문제를 제출하였고, 1925년 범태평양회의에는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을 요구하였다.

6) 독립군·광복군 군의로 활동

의학도들이 독립전쟁에서 담당한 독자적 영역이 군의(軍醫)였다. 만주지역에 독립군의 군의로 활약한 인물도 있고, 광복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만주지역의 독립군 기지 건설에 동참한 김필순·박서양을 비롯한 의학도들은 그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연결망일 뿐만 아니라, 독립군의 군의관으로서 활약한 인물들이기도 했다.

군의관 가운데 두각을 나타낸 인물 중의 한 명으로 광복군의 군의처장을 지낸 유진동(劉鎭東)이 있다. 평안남도 강서(江西) 출신인 그는 상해에서 동제대학(同濟大學) 의학부를 졸업하였다. 1930년대 이후 대부분 임시정부와 함께 이동하였고, 1940년에 임시정부가 중경에 정착하면서부터 의정원 의원이자 임시정부 가족들의 질병을 책임졌으

27) 박윤재. 김창세의 생애와 공중위생 활동. 의사학 15-2, 2006: 214-217쪽.

며, 특히 광복군이 창설되면서 군의처장을 맡았다.

이병훈(李秉勳)도 광복군 군의로 활약한 인물이다. 광동 중산대학(中山大學) 의과를 다닌 그는 중국군 군의관으로 활약하다가, 1943년 중경으로 가서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을 진료하였다. 상해 남양의과대학(南洋醫科大學) 출신인 남상규(南相奎: 1901~1972)는 중국군 군의관으로 활동하다가, 광복군에 전속한 인물이다. 서안에 자리잡은 광복군 제2지대에서 군의관으로 활약한 인물이 여럿 전해진다. 엄익근(嚴益根: 1890~1950)

왕인석이라는 이름으로 군의관을 지냈고, 최동인(崔東仁: 1912~?)도 역시 제2지대에서 군의로 활약했는데, 다만 출신 학교를 알지 못한다. 역시 제2지대 의무대에서 활약한 송영집(宋永渠: 1910~?)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모르지만, 1944년에 임시정부 내무총장 이름으로 발급된 의사증명서가 전해지고 있어서 특별한 경우라고 짐작된다.

조선의용대를 거쳐 광복군 군의로 활동한 인물도 보인다. 한금원(韓錦源: 1904~1949)은 동경의과대학 출신인데 1938년 10월에 결성된 조선의용대의 의무조장을 맡았고, 1942년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자 제1지대 의무주임을 맡아 중경에서 활동하였다.

군의가 아닌 일반 광복군으로 활약한 인물도 보인다. 중국 남경 중앙대학(中央大學) 의학원에 재학 중이던 정영호가 광복군 제2지대 3구대에 입대하여 초모공작과 정보수집 활동을 벌인 경우가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7) 해방 전야의 학생운동

(1) 광복 직전 학생비밀결사

1930년대 후반 국내 독립운동은 독서회 형태의 조직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40년, 즉 제2차 세계대전에 접어들면서 점차 독립군이나 결사대 같은 성격의 학생조직이 주류를 이루었다. 1940년 이후 무장봉기와 일본 요인 암살, 탄약고 파괴, 연합군 접선 준비 등 독립군적인 성격을 띤 학생단체들은 주로 '동맹·당·건국'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28]

이들 단체 이름에서 우선 전투적인 느낌을 주는데, 곧 해방이 눈앞에 닥칠 것이라는 확신과 결사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실제로 백의동맹(白衣同盟)이나 갑신동맹(甲申同盟)은 군사훈련을 가지고 산 속에 근거지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들은 일본군이나 경찰서 무기고를 기습하여 무장봉기를 꾀하거나, 총독을 비롯한 일본인 고관 암살과 일본인 거리 방화 등을 기획하였다. 여기

표 2. 광복 직전에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결성된 학생관련 조직

조직 이름	관련 학교	목적	비고
흑백당(黑白黨)	경복·중앙중·경성사범학교	고관처단, 일본인 거주지 방화	
조선민족해방협동당	경성제대 의학부	무장항쟁	사회인사 지도
괴회(槐會)	경기중학교	일인교사 공격	
근목단(槿木團)	경복중학교	일본 요인 처단	
갑신동맹(甲申同盟)	중앙·양정중학교	전투준비	
백의동맹	춘천사범학교	유격대 조직	
화랑회	이리농업학교	주재소, 광산 공격	
무궁단	부산제2상업학교	독립쟁취	
건국위원회	마산중·김해농림	연합군 정보 제공	사회인사 지도
조선독립당	동래중학교	총독암살, 무기고 파괴	
순국당(殉國黨)	부산진보통학교 동창(중학생)	총독암살, 조선독립당 세포	사회인사 지도
태극단	대구상업학교	군사학연구	
조선회복연구단	안동농림학교	고관 암살, 기관 파괴	사회인사 지도

28) 趙東杰. 韓國近代學生運動組織의 성격변화. 韓國民族主義의 발전과 獨立運動史硏究. 지식산업사; 1993: 274~277쪽.

에는 순수하게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조직도 있지만, 사회지도자들이 배후에서 지도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의학도들도 이런 조류에 해당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흑백당(黑白黨)과 조선민족해방협동당(朝鮮民族解放協働黨) 등이 그것이다.

(2) 흑백당

세브란스의전에 다니던 남상갑(南相甲: 1924~?)은 1941년 가을 경복중학 동창들과 더불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일본인 고관을 암살하려는 목적을 가진 흑백당을 결성하였다. 본래 경복중학 재학 시절부터 뜻을 함께 했던 이현상(李賢相)・성익환(成益煥)・주낙원(朱樂元)을 비롯한 동기들과 흑백당을 결성한 그는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 바칠 것, 비밀 엄수, 책임 완수 등을 기본강령으로 정하였다. 이들은 특공대를 조직하여 경복중학교 무기고에서 교련용 38식 소총 두 자루와 실탄 및 총검을 빼내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 거사는 일명 '경복 무기고 사건'이라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암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일제 멸망과 조국 광복의 필연성을 담은 격문을 살포하였으며, 남산동 일대 일본인 거류지역에 대한 방화를 계획하였다. 그런데 1943년 10월 보성전문학교의 김창흠이 검거되면서 조직이 와해되었다. 당원들은 급히 중국으로 가서 광복군에 투신하자고 결의하고 만주로 향했지만, 만주와 국내에서 전원이 검거되고 말았다. 남상갑은 5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3) 조선민족해방협동당

흑백당이 순수한 학생조직이라면 조선민족해방협동당은 일반인이 주도한 조직에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들이 참가한 경우다. 이 당은 일본에서 대동아학원(大東亞學院) 서무계 겸 강사로 활동하던 산해(山海) 김종백(金宗伯)이 일본이 패전으로 치닫고 있는 정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종전과 해방을 대비하여 국내 독립운동 세력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들과 연계하여 만든 조직이다.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들이 조선민족해방협동당에 가입하게 되는 계기는 1944년 7월 16일경, 종로구 관훈동 155번지 문우당서점(文友堂書店)에서 마련되었다. 이곳에서 정성장(鄭聖璋)과 김종설(金鍾卨)이 김종백을 만나고, 이후 정세 설명을 들은 뒤 조선민족해방협동당에 가담하기로 약속했다. 20일경 김종진(金禎鎭)이 먼저 입당하고 정성장도 입당을 약속했다.[29] 이후 조직이 확대되어 7월 29일부터 8월 초 사이에 경성제대 의학부에서는 김경동(金庚東)・권이혁(權彛赫)・차상임(車相壬)・박영수(8월 5일 탈당)・신백우(申百雨)・최창준(崔昌俊)・김교명(金敎命)・임광세(林光世)・김동섭(金東燮)・이상일(李相一) 등이 입당하였다.[30]

한편 신백우는 조선민족해방협동당 가입 이전에 이미 무장투쟁을 기획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미 1944년 2월에 휘문중학 동창 편강홍기(片江泓基), 금촌상웅(金村常雄), 의천종성(義川鍾聲), 오세준(吳世俊) 등과 모여 시국담을 나누다가, 편강홍기가 연료연구소에 근무하여 폭탄사용법 습득하고 있으므로 기회가 온다면 폭탄 투척할 심산이라면서 협력을 요구하였다. 이에 신백우를 비롯한 동창들이 이에 동의하고 나선 일이 있었다. 그런 신백우가 김정진으로부터 조선민족해방협동당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김종백을 만난 뒤 8월 2일 입당했고, 신백우는 편강홍기를 입당시켰다.[31]

---

29)審問調書 (昭和 19년, 1944년 刑第 6854號).

30) 이들이 입당할 때 10개조로 구성된 당칙을 서약하였다. 1. 당수에 대해 절대 복종할 것, 1. 당수의 인격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 1. 당에 절대 신뢰를 가질 것, 1. 당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
1. 동지는 서로 신뢰할 것, 1. 困苦缺乏을 견디고 당원은 서로 고락을 함께 할 것, 1. 당명에 절대 복종할 것, 1. 당을 배반하지 말 것, 1. 동지 획득에 노력할 것 (審問調書, 昭和 19년, 1944년 刑第6854號).

조선민족해방협동당은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들만의 조직은 아니었다. 당수 김종백 아래에 김해(金海)라고 불린 김준호(金俊鎬)가 학생층 최고 간부가 되고, 김정진이 사실상 경성제대 의학부의 책임자가 되었다. 이 당의 본거지가 경기도 포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32] 김정진만이 8월에 그 기지를 방문하였다고 전해진다.

조선민족해방협동당에 참가한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들은 이 조직의 규모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헤아릴 수 있는 점은 오직 지도자 김종백과 자신들을 직접 담당한 김준호를 통해 지도 받은 내용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다가 1944년 12월 중순에 갑자기 검거되는 비극을 맞았다.

이들이 일제 경찰에 노출된 계기는 당의 존재가 아니라 신백우를 비롯한 휘문중학교 동기들의 조직이 드러난 때문이었다. 1944년 12월 15일경 신백우가 어느 농가에서 휘문중학교 친구들과 폭탄 다루는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던 중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그리고서 12월 18일 정성장·최창준·김경동·차상임·임광세 등이 연이어 체포되어 경기도 경찰부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그 와중에 김정진·권이혁·김교명·김동섭·이상일 등 5명은 피신하는 데 성공하였다. 검거된 6명은 경기도 경찰부 유치장에서 고생하다가 1945년 1월 중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다. 1945년 2월 10일 경기도 경찰부는 정성장과 신백우에 대해 기소를, 최창준·김경동·차상임·임광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서대문형무소에서 고생하다가 5명은 기소 유예로 6월 3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하였고, 정성장은 7월 31일에 출옥하였다.

(4) 건국동맹

건국동맹(建國同盟)은 국내 사회주의자들이 일제패망과 조국광복을 대비하기 위하여 1944년 8월 10일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한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이다. 건국동맹과 관련 있는 인물로는 경성제대 의학부 출신 김종설(金鍾卨)이 있다. 일제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그는 정성장과 함께 조선민족해방협동당의 김종백을 만나게 되었다. 김종설은 자신이 여운형과 김종백의 연결점에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1944년 10월 하순에 김정진과 상의한 결과, 김종설은 가회동 자신의 집에서 여운형과 김종백의 면담을 주선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이 곧 건국동맹과 조선민족해방협동당이 제휴 협력하는 계기였다는 증언의 핵심이다.[33] 이러한 정황은 해방 직전에 여운형이 가까이 두고 지도한 청년학생들 가운데 그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 김종결(金鍾契·帝大의학생), 정두희(鄭斗喜·제대 의학부졸), 문규영(文奎榮)에게는 중학, 전문, 대학 학생층 및 청년훈련소와 해양소년단에 대한 공작임무를 맡겼다.[34]

여기에 보이는 김종결은 김종설의 잘못이다. 김종설은 경성제대 예과시절부터 축구부 주장이던 김정진과 의기투합하였는데, 이는 조선민족해방협동당에 김정진이 가담하는 과정에 김종설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만하다. 다만 그가 경성제대 의학부 팀과 어

31)審問調書 (昭和 19년, 1944년 刑第6854號).

32)이구영은 조선민족해방협동당의 기지가 포천군 이동면 백운동에 있었고, 당원은 징용·징병 반대자 8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빨치산 같이 활동하다가 대다수가 검거되었다고 증언하였다.(심지연. 역사는 남북을 묻지 않는다. 소나무; 2001: 385쪽). 임광세는 근래에 현지를 답사하고, 용흥사龍興寺가 바로 그곳이라고 믿고 있다. 현지 승려가 과거 주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면서 전해주는 내용이 흡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07년 2월 1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면담).

33) 3개월 앞서 김종설이 김종백을 만난 사실이 조선민족해방협동당 관련 심문조서에서 확인되고, 김종설이 여운형과 여러 인맥으로 연결되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 이만규가 쓴 『여운형투쟁사』에서도 여운형이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 김종설(간혹 金鍾潔이라 오기)을 가까이 했던 내용이 적혀 있어, 김종설이 여운형과 김종백의 연결선상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4) 이기형. 몽양 여운형. 실천문학사; 1984: 176쪽.

울리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그가 일경에 붙잡힌 계기도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들과는 달랐다. 김정진의 고종사촌형 최기업과 더불어 일제에 저항할 조직을 모의하던 가운데, 12월 초순 최기업이 전남 경찰부 고등계에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시점은 서울에서 조선민족해방협동당이 발각되기 며칠 전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김종설은 광주경찰서에 구류되었고, 바로 그 직후 서울에서 조선민족해방협동당이 발각됨에 따라 그도 여기에 연루되어 경기도 경찰부 고등계에 압송되었다. 이후 그는 조선민족해방협동당 소속 동급생들과 마찬가지로 서대문형무소 미결감에서 1945년 6월 상순경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35]

(5) 일본 유학생의 활동

이 시기에 일본에 유학한 의학도 가운데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한 인물이 있다. 구주의학전문학교(九州醫學專門學校)에 다니던 조무준(趙武駿: 1918~1989)은 유학생들의 모임에서 일본의 패전이 분명하다는 인식과 민족 독립에 대한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이 활동으로 말미암아 조무준은 1942년 5월에 기소되어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4. 맺음말

현재 국가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 독립운동 유공심의 대상자는 3백만 명이며 이중 심의가 끝난 사람은 20만 명이다. 그리고 이들 중 공훈심사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유공자로 확정된 사람은 1만 명 정도이다. 그리고 2008년 1월 현재 이들 중 71명이 의사 또는 의대재학중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독립운동가이며, 85명이 아직 국가로부터 포상 받지 못한 의사출신 독립운동가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의사(의대생 포함)출신 독립운동가는 156명에 달한다. 당시 서양의학을 공부한 의사의 규모로 볼 때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아직 포상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은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통해 상훈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일제하의 한국의사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의사라는 신분을 활용하기도 했고, 때로는 의사라는 신분을 버리고 자연인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 방식은 의료활동, 모금활동, 사회운동, 교육운동 등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정치·외교·군사 활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아직도 일제하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의사 각 개인의 활동과 이력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본고 역시 독립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부각시키려다보니 한 개인의 전체삶 속에서 독립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과오 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각 개인과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으며,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연구와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된 경우에 대한 연구도 향후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색인어 : 독립운동, 일제시기, 의학생, 의사

투고일 2008. 10. 30. 심사일 2008. 11. 1. 심사완료일 2008. 12. 1.

35)김종설 증언(2007년 2월 1일, 종암동 홀리데이인호텔).

= Abstract =

Medical Doctors'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ark Yoon hyung[35], Hong Tae sook[**], Sihn Kyu hwan[***], Lim sun mi[35], Kim hee gon[#]

There are approximately 10,000 people who have been identified as men of merit for independence movement b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Korea. Currently, January of 2008, it is assumed that there are 156 doctors (medical school students included) had participated in independence movement, among them, 71 people have received the rewards from the government with the honor of independence movement as a doctor or medical school student. However, there are still 85 doctors have not received any rewards from the government despite their participation in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doctors and medical students participated in independent movement through many way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made use of their doctor license, and occasionally took part in independent movement as ordinary people. They not only had acted as politicians, diplomats, and medical officers, but also supported medical service, donation campaign, social movement, and educational movement for independent movement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Key Words : Independence Movement, Japanese Colonial Rule, Medical Student and Doctors

[35]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366-1 Ssangyongdong, Chunan, Choongnam, Korea(330-090)*

[**] *Korean Medical Doctor's 100th Year Anniversary Foundation*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Andong National University*